



## 1,4학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생들의 활기찬 학교생활과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2022학년도 1,4학년을 대상(보호자가 검사지 작성)으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도구: 아동 정서·행동발달 검사지(CPSQ-II))를 실시합니다. 본 검사를 통해 아동기에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정서·행동의 발달 정도를 평가하고 어려움이 있는 학생의 경우 적절한 평가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학부모님의 응답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이 응답으로 인한 학교에서의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결과지는 추후 각 가정으로 우편 발송 합니다.

그리고 검사결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가정 및 지역사회 전문기관과 연계 및 학교 내 관심과 상담 등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니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학부모님께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학생 개개인의 정신건강관련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1. 검사 대상: 1,4학년 학생 대상- 학부모님(보호자)이 검사지 작성
2. 검사 기간: 4. 6.(목) ~ 4. 11.(화)
3. 검사 방법: 서면검사지 작성 후 4.12(수)까지 학교로 제출해주세요.
4. 검사단계: 1단계 - 아동 정서·행동특성검사지 (학부모님께서 직접 작성-총 65문항)  
2단계 - [전문기관검사] 1단계에서 기준 점수 이상인 학생  
⇒ Wee센터,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 직접 방문하여 심층평가 실시(학부모님 동반)

### 5. 유의사항

- ☞ 본 검사는 문제가 있다고 확정하는 진단검사가 아닌 정서행동발달 경향을 평가하는 선별검사입니다.
- ☞ 검사지 분실한 경우는 담임선생님께 문의하여 주세요.
- ☞ 1차 학교검사 결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아동의 경우, 학부모님의 동의를 구해 2차 전문기관 연계 후, 학부모님께서 직접 아동을 데리고 전문기관 내방하여 심층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신중히 검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4. 6.

전 주 서 천 초 등 학 교 장

-뒷면 참조-

# 부모님께서 궁금해 하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Q & A

## Q.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무엇일까요?

A. 신체발달의 정도는 신체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듯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학생의 성격특성과 정서·행동발달의 정도를 평가하고 성장과정에서 흔히 경험하게 되는 인지·정서·사회성 발달과정의 어려움을 조기에 평가하여 신속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선별검사입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책으로 2007년부터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 Q.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선별검사라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A.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확정하는 진단검사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군을 선별하는 검사입니다. 진단검사를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한 평가가 필수이지만 모든 학생들에게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간단한 자가 평가를 통해 문제 가능성이 높은 군을 선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부모 또는 학생의 자가 평가에 의한 검사의 특성상 잘못된 입력으로 인해 검사결과의 오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상담과 심층평가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 Q. 왜 이런 검사를 하나요?

A.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마음건강과 스트레스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학생의 성격특성을 파악하고 정서·행동의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여 성장기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잘 관리하고 극복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생 정서·행동 문제에 적절히 개입한다면 학업 성취도가 향상되며 학교 부적응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Q.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사용되는 검사도구는 신뢰할 수 있는 것일까요?

A.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학교를 기반으로 학생들의 성격특성과 정서·행동 발달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학문적 배경의 국내 전문 연구진에 의해 개발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선별검사 도구입니다.

## Q.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가 설문지에 답변한 것으로 관심군을 결정 하나요?

A. 예, 맞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님이 자녀의 정서·행동특성검사에 답변한 결과를 토대로 평가합니다. 아이의 일상생활에 대해 부모님이 잘 아시는 경우가 많고 혹여 아이가 더 잘했으면 하는 모습들을 부모님이 체크하게 됩니다. 이 검사로 아이의 정서·행동 발달 경향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정서·행동 발달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고 다시 한 번 우리 아이의 마음 건강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 Q. 설문지 문항 몇 개로 어떻게 아이의 심리상태에 대해 평가할 수 있나요?

A.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성격특성과 해당 연령대에 흔히 나타나는 정서·행동문제를 개략적으로 파악하는 선별검사입니다. 이 검사로 아이의 심리상태를 모두 파악할 수는 없으며, 아이의 마음상태에 대해 보다 심층적,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건강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우리 아이가 관심군 판정을 받았는데,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A. 관심군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학생의 해당 연령, 성별에 비해 정서·행동문제의 총점이 평균 보다 일정 이상 높은 점수가 나온 것을 의미하며, 그 자체로는 학생의 심리문제를 모두 파악하거나 특정 정신과적 질병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집중력의 저하나 불안, 우울, 학습부진, 사회성부진, 짜증 등 부정적 기분, 반항적 태도, 스트레스, 자기통제부족 등의 경향성을 또래에 비해 비교적 많이 나타낸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Wee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에서 추가적인 평가를 받는다면 아이의 상태에 대해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